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

Relationships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with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College Students

정혜정**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부

Hyejeong Chung

College of Human Ec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a causal model concerning the direct and the indirect effect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rough self-differentiation. The gender differences in the levels of the variables and the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were also examined. Participants were 587 female and 268 male students enrolled in nine different universities. The causal model was test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 by using AMOS 8.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the levels of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high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and that the three variabl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to each other for both males and females. The result also indicated that male students' perception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directly influenced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as well as indirectly through self-differentiation, while females' family-of-origin functioning had only a direct effect on their well-being.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applicability of self-differentiation to Korean college students and of the importance of family-of-origin functioning to improve students' mental health.

Key Words : self-differentiation, family-of-origin functioning, psychological well-being

I. 서론

대학 시기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독립을 추구하는 시기임과 동시에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대학시기의 성공적 적응은 미래의 사회적 역할 수행을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대학생들의 성공적 적응은 심리적 안녕이나 정신건강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최근의 각종 조사와 대중매체의 보고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점점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대학생 전체의 약 52.6%가 최근 1년간 정신건강에 문

제를 느꼈다고 응답했고(동아일보, 2007), 약 12%는 우울 증 등 각종 심리적 부적응에 시달리고 있으며, 2006년 1년 사이 20대 자살 사망률(10만명당 사망지수)이 17.7%로 전년 대비 3.9명이 증가하였다(분당서울대병원, 2007). 또한 대학생들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현황을 살펴본 연구(이현주, 2000)에 의하면 전체의 약 1/3이 넘는 37.5%의 학생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이 어떠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는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사료된다.

대학생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은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그 어떤 요인보다 대학생 개인이 태

* 이 논문은 2007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Corresponding author: Chung, Hyejeong

Tel: 063) 270-3828, Fax: 063) 270-3839

E-mail: chunghj@chonbuk.ac.kr

어나 성장한 원가족(family-of-origin)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며 평생을 통해 지속된다. 대학생이 되면서 가족의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가족과 부모의 영향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의 경우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부모가 34.6%, 친구 33.3%, 이성 친구 16.8%로서 부모의 영향이 여전히 큼을 알 수 있다(김나리, 2002). 이와 같이 대학생 자녀에게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의 역동과 기능은 심리적 안녕 및 긍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반대로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은 자녀들의 심리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와 밀접히 연관될 수 있다.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이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러한 시각은 초기 가족치료 이론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바이기도 하다.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본 초기 가족치료 이론(Bowen, 1978; Kerr & Bowen, 1988; Minuchin, 1974; Satir, 1972)은 개인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가족의 기능 혹은 정서적 건강성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여 왔다. 대표적으로 다세대 가족치료 이론을 발전시킨 Bowen(1978; Kerr & Bowen, 1988)은 가족의 역기능적 정서체계가 세대간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족원 개인이 심리정서적 혹은 행동적 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 과정에서 부모 혹은 가족원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자기분화는 원가족의 정서적 상호작용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Bowen 이론은 국내외 많은 경험적 연구의 초점이 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원가족 기능과 심리적 혹은 관계적 적응(권미애, 2004; 김경자, 2004; 김순기, 2001; 김재수, 2008; 이원옥, 2003; 이현주, 1998; 전춘애, 1994, 유은희, 1991; Heaven, Searight, Chastain, & Skita, 1996; Sabatelli & Bartle-Haring, 2003), 자기분화와 심리적 적응(배미애, 2008; 임지혜, 2004; 하상희, 정혜정, 2008; Chung & Gale, 2006; Holmes & Sabatelli, 2003; Pelog-Popko, 2002),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강명자, 2007; 김민경, 2003; 김정은, 2006; 박유화, 2001; 전춘애, 1994; Johnson, Thorngren, & Smith, 2001) 등 두 변수를 관련지은 연구는 비교적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대학생활 적응의 중요한 지표인 심리적 안녕이 대학생 개인의 자기분화 수준에 의해 달라질 것이고 또 그들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의 영향을 받을 것이며, 원가족 경험에 따라 자기분화 수준이 달라질 것이라는 Bowen이론의 기본 가정을 연결 지은 경험적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한국인의 정신건강이나 심리적 안녕이 성별에 따라 차

이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김수진, 2003; 김재수, 2008; 박병두, 이규향, 이재광, 유영식, 기백석, 1993; 황원준, 정용균, 김종주, 1995; Yun, Kim, Lee, Park, & Kim, 2007)을 기초로 할 때,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자기분화 수준에서의 성차 뿐 아니라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지나 이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상호 관계뿐 아니라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 영향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활의 성공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성차가 발견된다면, 성별에 따라 프로그램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 자녀가 있는 가족의 발달과업을 적절히 성취하였는가의 여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는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 프로그램에도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나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Bowen 이론이 우리나라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데 적용가능한가를 경험적으로 검증함으로써, Bowen이론의 문화적 보편성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이선혜, 1998; 신혜섭, 2002; Gushue & Constantine, 2003; Skowron, 2004; Tuason & Friedlander, 2000)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II. 이론적 배경

1. 주요 개념

본 연구의 초점인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심리적 적응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자기분화는 심리내적 차원과 대인관계 차원을 포괄하는 Bowen의 핵심 개념이다. 심리내적 차원의 자기분화는 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대인관계 차원에서의 자기분화는 자신과 타인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은 감정을 충분히 느끼면서도 이성적 원칙에 따라 생활할 수 있고 또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이 낮고 심리적 안녕 수준이 높으며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융통성이 있다. 반면 자기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며 자신이 선택한 삶 보다는 타인에 의해 움직이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안과 심리적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Bowen, 1978; Kerr & Bowen, 1988; Skowron & Friedlander, 1998).

원가족은 개인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시작하는 가족으로서, 원가족의 건강한 기능은 일생을 두고 개인의 심리적 및 관계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원가족의 건강한 기능은 초기 가족치료이론의 주요 초점이었으며, 원가족 건강성을 타당하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의 공통된 특징은 자율성과 친밀성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그리하여 Hovestadt 등(1985)은 초기 가족치료 이론의 여러 학자들(Bowen, 1978; Framo, 1976; Boszormenyi-Nagy & Spark, 1973; Whitaker & Keith, 1981)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원가족 척도(Family of Origin Scale: FOS)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자율성과 친밀성의 두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 척도는 가족환경척도(Family Environment Scale) 및 가족응집성과 적응력 척도(FACES) 등 다른 가족기능 척도들과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으로써(Niedermeier, Searight, Handal, Manley, & Brown, 1995), 전반적인 가족 기능을 측정하는 타당한 도구(Piatt & Ketterson, 1993)로 여겨지고 있다.

심리적 안녕은 생활경험에 대한 반응과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지각으로서, 타인이 이해할 수 없는 사고나 행동을 하는 것으로 사고 및 감각의 왜곡을 동반하는 정신장애(en.wikipedia.org)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심리적 안녕의 긍정적 측면은 자존감이나 긍정적 정서 혹은 생활만족도로,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울감이나 불안 등의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김순기, 2001; 김오남, 1998; Skowron, Holmes, & Sabatelli, 2003).

2. 이론적 틀과 선행연구 고찰

1) 이론적 틀: Bowen 가족체계이론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을 Bowen의 가족체계이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Bowen(1978; Kerr & Bowen, 1988)에 의하면 불안이나 우울 등으로 나타나는 개인의 심리적 안녕은 그가 속한 핵가족 정서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강하게 기능하는 가족은 결속감과 개별성이라는 두 세력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가족원 개인의 분화를 촉진한다. 한편 역기능적인 가족은 결속력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가족체계는 미분화 상태에 처하고 가족원이 서로 융합되어 가족원 개인의 자기분화 발달은 방해받는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자기분화는 Bowen 가족체계이론의 핵심 개념으로서 성숙하고 건강하게 기능하는 개인은 자기분화 수준이 높은 반면, 건강하지 못한 개인은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하게 사고하는 것이 어렵고 외부의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타인과 쉽게 융합하고 정서적으로 혼란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Bowen 이론에서 볼 때,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은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고,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은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며 또 자기분화는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된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들간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구성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음에서는 이들 변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결과들을 살펴보고, 이론적 모형 구성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우선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의 관계에 관한 국내의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세대(권정란, 2005; 김경자 2004; 오청미, 2005; 전춘애, 1994)와 자녀세대(김민경, 2003; 박유화, 2001; 윤세은, 2000)를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모두 원가족 건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다. 한편 Bowen 이론이 발달한 미국에서는 자기분화와 원가족 기능의 관계에 직접적인 초점을 둔 경험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Miller et al., 2004). 예외적으로 Johnson 등(2001)은 젊은 성인이 지각한 가족기능이 분화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발견하였고, 또한 자기분화를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관련된 개념으로서 세대간 융합에 초점을 둔 연구(Klever, 2003)에서 세대간 융합이 심할수록 핵가족의 건강한 기능수준이 더 낮았다.

다음으로 원가족 기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들은 상당히 일관적이어서 원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가족원 개인이나 자녀들의 심리적 안녕감이 더 높았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김순기, 2001; 김재수, 2008), 미혼성인(이원옥, 2003), 기혼남녀(양진선, 2004)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원가족 기능은 심리적 안녕의 여러 지표(자존감, 생활만족도, 우울감 등)와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외국에서도 정신과에 입원한 청소년

년과 일반집단 청소년의 가족기능을 비교한 연구(Niedermeier et al., 1995), 호주 청소년(Heaven et al., 1996), 대학생(Buboltz, Johnson, & Woller, 2003), 일반 성인(Bartle-Haring & Sabatelli, 1998; Piatt & Ketterson, 1993; Yelsma, Hovestadt, Anderson, & Nilsson, 2000)을 대상으로 한 연구 등에서 원가족 건강성의 여러 지표들이 심리적 안녕의 다양한 지표와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가족관계 기능과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의 관계는 미국, 중국, 한국의 청소년간에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연구결과(Dmitrieva, Chen, Greenberger, & Gil-Rivas, 2004)는 특정 문화에 상관없이 원가족 건강성이 자녀들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입증한다고 하였다.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은 이 두 변인이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비교적 일관적으로 보여주었으나, 연구의 내용과 폭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권미영, 1993, 배미애, 2008), 기혼남녀(이신숙, 2000; 임지혜, 2005) 및 중년여성(임지혜, 2005)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자기분화는 심리적 안녕의 여러 지표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외국의 경우 자기분화는 대학생의 사회적 불안 및 생리적 증상과 부적인 상관이 있었고(Peleg-Popko, 2002), 자기분화는 대학생의 학업 및 경제적 스트레스가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였으며(Skowron, Wester, & Azen, 2004), 성인 대상 연구(Skowron et al., 2003)에서도 자기분화는 심리적 안녕과 중요한 관계가 있었고, 또 주우울증 집단의 자기분화 수준이 일반집단의 그것보다 더 낮았다(Elieson & Rubin, 2001). 최근에 한국과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ung과 Gale(2006)의 비교연구에서도 자기분화는 두 나라 대학생 모두의 심리적 안녕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3.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

원가족 기능이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이 남녀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가라는 질문은 각 변수의 성별에 따른 차이에 초점을 둔 선행연구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심리적 안녕이나 정신건강에서의 성차에 관한 선행연구를 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심리적 안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비교적 일관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우리나라 15개 지역의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삶의 질을 조사한 윤영호 등(Yun et al., 2007)의 연구결과를 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 등 정신건강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까지는 정신건강 수준에서의 남녀차이를 거의 발견할 수 없으나 대학 이후 여성의 정신건강 수준이 남성

에 비해 더 낮았고(김수진, 2003), 정신과 응급실 방문자들 가운데 61.2%가 여성인 반면 남성은 38.8%였으며(박병두 등, 1993), 정신장애의 평생 유병율의 남녀 비율은 4:6으로 여성이 평생동안 정신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황원준 등, 1995). 그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신건강 수준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김재수, 2008)도 있고, 기혼남녀가 지각한 긍정적 정서와 우울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김순기, 2001)도 있다.

한편, 미국에서 Radolff(1977)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더 높았고 기혼여성의 경우가 우울감이 가장 높았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정신건강 연구를 고찰한 Lips(2008)는 정신장애의 전반적인 발병율에서 남녀차이는 없지만, 여성과 남성이 경험하는 장애의 종류에서는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우울증과 불안 수준이 남성보다 더 높았고, 남성은 물질남용이나 반사회적 성격장애 등으로 진단받는 경향이 더 높았다고 하였다.

자기분화 수준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Bowen은 자기분화 개념이 모든 문화권의 모든 가족과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주장(Kerr & Bowen, 1988)하였기 때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Knudson-Martin(1994)은 Bowen 이론이 고정관념적인 남성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비판하였으며, Ault-Riehe(1986)는 여성이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이 Bowen 이론에서 무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기분화의 성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일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Miller 등(2004)은 자기분화 원칙도(DSI)를 사용한 경험적 연구를 고찰한 결과, 전체 자기분화 점수에서는 남녀차이가 없었지만, 정서적 반응 요인에서는 여성이 더 높았고, 자기입장은 남성이 더 높았으며, 타인과의 융합에서의 성차 연구결과는 일관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한편 Elieson과 Rubin(2001)은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자기분화 수준이 더 높았다고 하였고,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결과를 보면, 남자가 여자보다 아버지와의 분화가 더 높았으나, 어머니와의 분화수준에서는 성차가 없었다(권미애, 2004).

가족기능 및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들은 아직 일관적이지 않다(Mille, Anderson, & Keala, 2004). Bowen(1978; Kerr & Bowen, 1988)에 의하면 낮은 분화수준을 가진 사람은 성별에 상관없이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나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성차가 없다는 연구결과(Bohlander, 1995; Richards, 1989; Skowron &

Friedlander, 1998)가 있는 반면, 자기분화가 여성의 심리적 안녕과는 연관되지만 남성의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Weiner, 1989)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 연구(전연진, 2002)에서 초등학교 아동과 부모를 조사한 결과, 부모의 원가족 분화 경험, 부부갈등,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 그 경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4. 연구내용

이상과 같이 국내외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원가족 경험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는 비교적 일관적이어서 이 변인들이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을 보면, 첫째 국내연구의 내용과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더욱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둘째, 많은 연구들이 원가족 기능 및 자기분화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일치하지 않고, 특히 자기분화 개념에 가족투사나 가족퇴행 등의 가족분화 개념까지 포함하여 측정하여 자기분화 측정에서 타당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소수의 연구(박유화, 2001; 이천숙, 1996; 전연진, 2002)가 가족기능,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으나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나 직접영향에만 초점을 두었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두 변인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넷째, Bowen 이론을 기초로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에 대한 인과모형을 설정하고 검증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섯째,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에서 성차가 있다는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 성차가 있는지, 그리고 인과모형의 검증에서 성차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Bowen 이론의 기본 가정과 이상의 선행연구 및 제한점을 기초로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하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 자기분화, 그리고 심리적 안녕은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은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이 자기분화

를 통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와 3은 심리적 안녕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남학생과 여학생을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며, 변수들간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 자료는 전국의 9개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들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이 지역적으로 골고루 포함될 수 있도록 수도권 3개 대학, 경상권 2개 대학, 충청권 2개 대학, 전라권 2개 대학에 재학 중인 1,0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각 대학의 교수나 강사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를 구하였으며, 설문응답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하도록 하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고 최종 분석에는 855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1.03세(SD=2.14)이었으며, 성별은 여학생 587명(68.7%)과 남학생 268명(31.3%)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전공별 분포를 보면 자연계 368명(43.6%), 인문사회계 432명(51.1%), 예체능계 45명(5.3%)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상태는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가 589명(70.5%)인 반면, 혼자 또는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경우가 247명(29.5%)이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심리적 안녕은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첫째, 원가족 기능은 Hovestadt 등(1985)이 개발한 원가족 척도(FO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에 관한 20문항과 자율성에 관한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이루어졌으나 두 영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선행연구들(Lee, Gordon, & O'Dell, 1989; Mazer, Mangrum, Hovestadt, & Brashear, 1990)에서 두 영역을 합산한 점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을 뿐 아니라 본 연구에서도 친밀감과 자율성간의 상관관계가 $r=.88(p<.001)$ 로 매우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이 척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이 자기 원가족의 기능을 건강하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전체 원가족기능의 신뢰도는 남녀 학생 모두 Cronbach's $\alpha=.95$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분화는 Skowron과 Schmitt(2003)이 개발한 DSI-R(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Revised)을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분화의 심리내적 차원으로 '정서적 반응'과 '자기입장'을, 대인관계 차원으로 '정서적 단절'과 '타인과의 융합' 요인을 포함하였다. 정서적 반응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정서적으로 과민하게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기입장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감과 타인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한편 정서적 단절은 친밀감의 손상을 두려워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잉기능하고 거리감을 두거나 친밀감을 부정하는 것을 나타낸다. 타인과의 융합은 타인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몰입하는 상태, 부모나 타인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kowron & Friedlander, 1998; Skowron & Schmitt, 2003).

자기분화 척도는 0(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의 6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은 낮은 반면, 전체 자기분화 수준과 자기입장 수준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분석결과 정서적 반응은 남학생 Cronbach's $\alpha=.74$, 여학생 $\alpha=.76$ 이었고, 자기입장은 남학생 모두 $\alpha=.67$ 이었다. 또한 정서적 단절은 남학생 $\alpha=.67$, 여학생 $\alpha=.70$ 이었으며, 타인과의 융합은 남학생 $\alpha=.63$, 여학생 $\alpha=.64$ 로 나타났다. 전체 자기분화 수준의 신뢰도는 남학생 모두 $\alpha=.84$ 이었다.

셋째, 심리적 안녕은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구성되어 측정하였다. 자존감은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한 긍정적 느낌이 높음을 나타낸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남학생 Cronbach's $\alpha=.80$, 여학생 $\alpha=.83$ 으로 나타났다. 우울감은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of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모두 20문항으로 각 문항을 지난 한달

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가를 4점 리커트 척도(0=경험한 적이 없다, 4= 거의 매일)로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을 높게 지각함을 나타낸다. 신뢰도 검증 결과 남녀학생 모두 Cronbach's $\alpha=.89$ 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자료는 SPSS/WIN 12.0을 이용하여 세 가지 주요변인에 대해 신뢰도(Cronbach's α)를 검증하고, 기본적인 기술 통계 외에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t 검증과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3]의 분석을 위해 AMOS 8.0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검증은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한 지수로 χ^2 값과 GFI, AGFI, GFI, CFI, TLI, RMSEA값을 사용하였고(노형진, 2003),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확보하기 위한 수정은 이론적 정당성과 수정지수에 근거하였다. 또한 연구모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다중집단 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t-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원가족 기능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자기분화의 하위척도 가운데 정서적 단절을 제외한 모든 하위척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분화 수준이 더 낮았다. 구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타인과 융합하는 정도는 더 높았으나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자기의 신념을 견지할 수 있는 능력은 더 낮았다.

<표 1> 성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

	원가족 기능	자기 분화					심리적 안녕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의 융합	전체 자기분화	자존감	우울감
여학생	3.66(.58)	2.72(.61)	3.55(.56)	3.87(.57)	2.71(.51)	3.22(.41)	4.11(.65)	2.08(.41)
남학생	3.68(.52)	2.92(.62)	3.80(.57)	3.83(.61)	2.91(.52)	3.37(.43)	4.25(.64)	1.92(.43)
t 값	.45	4.42***	5.83***	-.79	5.12***	4.80***	2.91**	-4.78***

심리적 안녕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감은 더 높았던 반면 자존감은 더 낮았다.

2.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Fisher's r-to-z 변형 분석(Cohen & Cohen, 1983)을 통하여 상관계수에서의 성차를 분석하였다. <표 2>와 <표 3>에서 보듯이, 원가족 기능은 타인과의 융합 요인을 제외한 모든 자기분화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특히 정서적 단절과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대학생들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자기입장과 전체적인 자기분화 수준은 더 높았던 반면 정서적으로 반응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에 거리감을 두거나 과민하게 반응하는 수준은 더 낮았다. 또한 원가족 기능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높았던 반면 우울감 수준은 더 낮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에서의 성차는 원가족 기능과 자존감의 관계에서 유의수준에 접근(p<.10)하는 성차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원가족 기능과 자존감의 관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아서, 원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더 높은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음을 나타내며, 원가족 기능이 자기분화 및 우울감과 관계되는 정도는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간의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3), 남녀학생 모두 모든 하위요인들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하위요인의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수준이 높았다. 한편 Fisher's r-to-z 변형 분석(Cohen & Cohen, 1983)에 의해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 사이의 관계에서 성차가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과 정서적 반응, 자존감과 정서적 단절, 우울감과 정서적 단절, 자존감과 타인과 융합, 전체자기분화 점수와 자존감 및 우울감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다. 이는 자기분화의 하위요인 가운데 정서적 반응, 정서적 단절, 타인과 융합 및 전체 자기분화 점수가 자존감과 관련되는 정도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단절과 전체 자기분화 점수도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우울감과 더 높은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3. 이론적 모형의 검증

연구문제 3과 관련하여 남자 대학생과 여자 대학생의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론적 모형의 검증은 상관행렬자료(부록 1)를 기초로 최대우도법에 의한 공분산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모형의 원가족 기능은 관측변수가 하나로 구성되어있어 경험적 과소식별(empirical under-identification) 문제가 발생한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측정모형이라도 관측변수의 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이론적으로는 식별이 가능하여 자유도 값은 산출되지만 자료를 식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

<표 2> 전체 가족기능과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자기 분화					심리적 안녕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 융합	전체 자기분화	자존감	우울감
원가족 기능	여학생	.10***	.20***	.37***	.01	.24***	.33*** ^b	-.34***
	남학생	.14***	.29***	.42***	.04	.32***	.44*** ^b	-.42***

(b: Fisher's r-to-z transformation p<.10)

<표 3>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수		자기 분화					
		정서적 반응	자기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 융합	전체 자기분화	
심리적 안녕	자존감	여학생	.22*** ^b	.42***	.34*** ^a	.17*** ^a	.39*** ^a
		남학생	.33*** ^b	.48***	.50*** ^a	.32*** ^a	.56*** ^a
	우울감	여학생	-.40***	-.27***	-.44*** ^a	-.21***	-.45*** ^a
		남학생	-.42***	-.36***	-.61*** ^a	-.26***	-.57*** ^a

(a: Fisher's r-to-z transformation p<.05, b: Fisher's r-to-z transformation p<.10)

러한 상황을 경험적 과소식별이라고 한다(배병렬, 2007). 그러므로 외생변수인 원가족 기능의 오차항에 제약을 가하여 모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녀 학생 모두 χ^2 값(남학생 $\chi^2=120.2$, 여학생 $\chi^2=243.1$)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고($p<.001$), RMSEA는 남녀학생 모두 .18로 일반적인 수용 범위인 .10이하를 벗어났으며, GFI(남=.89, 여=.90)는 수용 권장수준에 접근하였으나 CFI(남=.82, 여=.79)와 TLI(남=.69, 여=.64)는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90이하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적 모형의 적합도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모형 수정을 고려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이론적 정당성과 경험적 분석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본 결과 산출된 수정지수(modification index)를 검토하여 측정오차간의 상관을 허용하는 방향(배병렬, 2007)으로 모델을 수정하였다. 그 결과 수정 모델의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가 매우 향상되어 수정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1) 남학생 집단의 모형 검증

우선 남학생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우선 $\chi^2=32.6$ ($p<.001$)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GFI=.97, CFI=.96, AGFI=.90, TLI=.91로 수용기준인 .90을 모두 넘었으며 RMSEA=.10으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10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남학생의 수정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의 구조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고 경로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은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분화도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은 자신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고 심리적 적응 수준도 더 높았으며, 뿐만 아니라 자기분화 수준은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변인으로서, 원가족 기능은 심리적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뿐 아니라 자기분화를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쳤음을 나타낸다.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전체효과를 산출해 보면, 심리적 안녕은 원가족 기능의 직접효과(.21)와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효과($.47 \times .73=.35$)를 합한 전체효과($.21+.35=.56$) 보다 자기분화에 의한 직접효과(.73)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심리적 안녕이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설명되는 부분보다 개인체계 특성인 자기분화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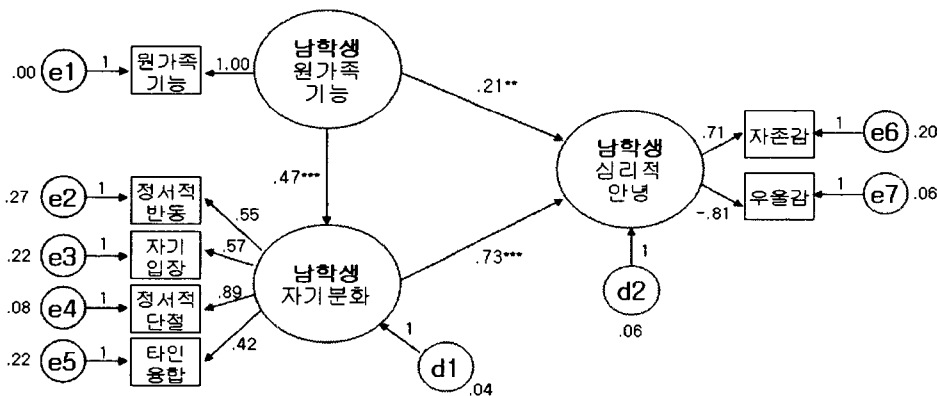
2) 여학생 집단의 모형 검증

다음으로 여학생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에 대한 결과, $\chi^2=18.2$ 이고 유의한 것($p<.01$)으로 나타났으나, GFI=.99, CFI=.99, AGFI=.96, TLI=.96으로 수용기준인 .90을 모두 넘었으며 RMSEA=.06으로 일반적인 수용기준인 .10이하

<표 4> 남학생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원가족 기능 → 자기분화	.20	.04	.47	5.00
원가족 기능 → 심리적 안녕	.18	.06	.21	3.02
자기분화 → 심리적 안녕	1.54	.27	.73	5.66

($z > \pm 1.96$)



[그림 1] 남학생 수정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인 것으로 나타나 수정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여학생의 수정모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의 구조 경로계수는 <표 5>에 제시되어 있고 경로모델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여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은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만 미쳤을 뿐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태어나 성장한 원가족의 정서적 역동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개인체계 특성인 자기분화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은 더 낮았다. 한편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은 자기분화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 수준이 더 높았다. 심리적 안녕에 대한 전체효과를 산출해 보면, 원가족 기능이 미치는 효과(직접효과=.41, 간접효과=.05, 전체효과=.41+.05=.46)보다 자기분화가 직접 미치는 전체효과(.61)가 더 커서, 남학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은 원가족 건강성보다 자기분

화 수준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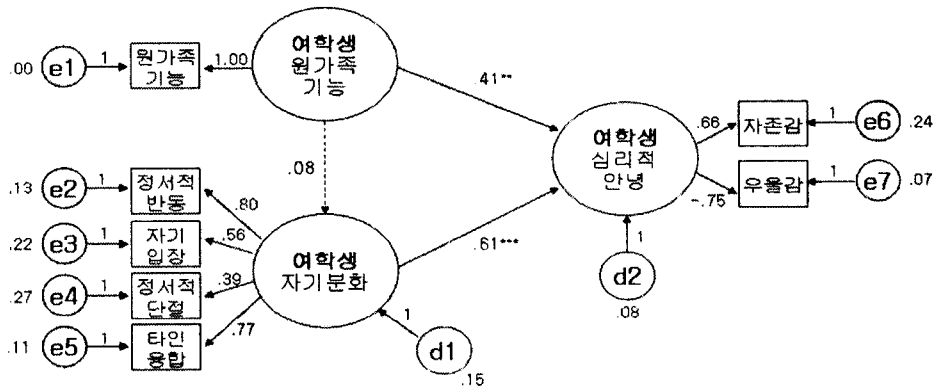
3)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간 모형 차이 검증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한 이론적 모형이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두 모델 각각의 구조경로계수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남학생과 여학생 모델에 나타난 3개의 구조경로계수의 χ^2 변화량($\Delta\chi^2$)을 살펴보았다. 자유도(df)가 1만큼 증가할 때 χ^2 변화량이 3.84이상으로 나타나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배병렬, 2007), 본 연구결과에서는 '원가족 기능 → 자기분화'의 경로와 '자기분화 → 심리적 안녕'의 경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원가족 기능이 자기분화에 미치는 영

<표 5> 여학생 구조모형의 구조경로계수

잠재변수간의 구조	비표준화 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계수	z값
원가족 기능 → 자기분화	.05	.03	.08	1.61
원가족 기능 → 심리적 안녕	.31	.04	.41	8.30
자기분화 → 심리적 안녕	.67	.09	.61	7.71

$z > \pm 1.96$



[그림 2] 여학생 수정 모형의 경로와 표준화 계수

<표 6> 남학생과 여학생 모델간의 차이검증

변인	개별 표본분석의 경로계수		$\chi^2(df)$	$\Delta\chi^2(\Delta df)$
	남학생	여학생		
원가족 기능 → 자기 분화	.20	.05	144.44(24)	6.001(1)*
원가족 기능 → 심리적 안녕	.18	.31	148.73(24)	1.709(1)
자기 분화 → 심리적 안녕	1.54	.67	141.60(24)	8.841(1)*

($\Delta\chi^2 > \pm 3.84 = *p < .05$; 개별표본분석의 경로계수=비표준화추정치)

향력과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유의하게 더 큼을 나타낸다. 한편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직접 경로에서는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이 경로에서의 영향력의 크기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직접 영향과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 영향에 관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심리적 안녕 수준에서의 남녀차이, 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및 상관관계에서의 남녀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 원가족 기능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대부분의 자기분화 요인 및 심리적 안녕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전체 자기분화 점수와 자기입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높았고, 정서적 반응 및 타인과의 융합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인 자기분화 수준이 더 낮음을 나타내는 결과로서, 자기분화가 모든 가족과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개념이라는 Bowen의 주장(Kerr & Bowen, 1988)과 다른 결과이다. 이 결과가 Bowen이론에서 여성이 자신을 정의하는 과정이 무시되었다는 주장(Ault-Riehe, 1986; Knudson-Martin, 1994)을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심리적 안녕 수준에서도 성차가 발견되어 자존감은 남성이 더 높았던 반면 우울감은 여성이 더 높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많은 선행연구(김수진, 2003; 박병두 외, 1003; 유영달, 2003; 황원준 외, 1995; Yun et al., 200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둘째,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및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두 변수들간의 분석 결과에 초점을 두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원가족 기능과 자기분화간의 상관분석 결과, 타인과의 융합을 제외한 자기분화의 세 하위요인 및 자기분화 전체점수와 원가족 기능이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원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수록 타인으로부터 압력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입장 수준이 더 높았고 전반적인 자기분화 수준이 더 높았던 반면, 외부의 스트레스 자극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정서적 반응 수준과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의 정서적 단절 수준이 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Bowen의 이론적 시각이 경험적으로 검증된 결과일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한편 타인과의 관계에 정서적으로 과잉몰입하고 타인과 지나치게 동일시함을 나타내는 타인과의 융합은 원가족 기능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많은 자기분화 척도들이 Bowen이 정의한 타인과의 융합 개념을 타당하게 측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Jenkins, Bubultz, Schwartz, & Johnson, 2005; Johnson, Thorngren, & Smith, 2001)을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서양에 비해 가족주의 가치관이 더 강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성향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가족 기능과 심리적 안녕의 상관분석 결과, 남녀학생 모두 원가족 기능 수준을 높게 지각할수록 자존감이 더 높았고 우울감은 더 낮았는데, 이 결과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히 원가족 기능과 자존감 간의 상관관계에서 성차가 발견되어, 원가족 기능이 자존감과 상관된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았나, 원가족 기능과 우울감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간의 상관분석 결과, 남녀학생 모두 자기분화의 네 가지 하위요인 및 전체 점수는 심리적 안녕의 두 가지 지표, 즉 자존감 및 우울감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남녀학생 모두 자존감은 높고 우울감은 낮았다. 또한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의 성차분석 결과, 타인과의 융합과 자존감, 정서적 단절과 우울감, 자기분화 전체점수와 자존감 및 우울감간에 성차가 발견되었고, 정서적 반응과 자존감간의 관계에서의 성차는 유의수준에 접근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분화가 자존감 및 우울감과 관련되는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아서,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우울감이 낮은 정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간의 상관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남녀학생 모두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는 결과는 Bowen의 시각이 우리나라의 남녀 대학생에게 적용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일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내외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였음을 나타낸다. 다른 한편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이 관련되는 정도에서 성차가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와 앞서 논의하였듯이 정서적 단절 요인을 제외한 모든 자기분화 요인에서 성차가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흥미로운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불안이 낮고 심리적 안녕수준이 높을 것이라는 Bowen의 시각이 본 연구에서 입증되었지만, 그 정도에서 남녀간에 차이가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Bowen의 시각

이 여성의 경험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남성우월주의를 담고 있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Ault-Riehe, 1986; Knudson-Martin, 1994)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결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결과는 타인과의 융합이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척도를 사용한 외국의 연구와 다른 결과이다. 즉 DSI 혹은 DSI-R을 사용하여 자기분화를 측정한 미국의 연구들(Skowron, 2004; Skowron & Friedlander, 1998; Tuason & Friedlander, 2000)에서 타인과의 융합은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외국의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연구자들(Jenkins et al., 2004; Johnson et al., 2001)은 이 척도들에서 타인과의 융합이 타당하게 측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따라서 어느 정도의 융합이 이상적인 혹은 적절한 수준인지에 대한 보다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타인과의 융합이 심리적 안녕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는 척도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결과이며, 문화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앞으로 자기분화와 심리적 안녕의 관련성이 개인주의 문화와 집단주의 문화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한다면, Bowen 이론의 문화적 보편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Bowen의 자기분화 개념이 집단주의의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일부 비판적 시각(이선희, 1998; 신혜섭, 2002)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직접 효과와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효과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연구모형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즉 남학생의 경우, 원가족을 건강하게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수준이 높았을 뿐 아니라, 자기분화 수준이 높았고 이는 결국 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여학생의 경우, 원가족 기능이 심리적 안녕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쳤으나 자기분화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는데,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은 원가족 기능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기분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았다. 한편, 남녀학생 모두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전체 효과는 원가족 기능보다 자기분화가 더 높아, 심리적 안녕을 설명할 수 있는 크기는 원가족 기능보다 자기분화가 더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본연구와 동일한 모형을 설정하여 검증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행연구와의 비교가 어렵지만, Bowen 이론이 남학생에게는 그대로 적용되었던 반면 여학생에게는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시사한다. 더욱이 원가족 기능이 남학생은 물론 여학생의

자기분화(타인과의 융합 요인 제외)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는 본 연구결과와 이론적 모형이 여학생에게는 부분적으로 검증되었다는 본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Bowen 이론이 우리나라의 여자 대학생에게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결론은 매우 성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이론적 모형 검증에서의 성차 분석에서 원가족 기능→자기분화 경로와 자기분화→심리적 적응 경로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영향력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Bowen 이론의 성별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첫째,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은 미래의 직업생활과 가족생활의 기반이 되므로,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상담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최근 많은 대학에서 학내상담실을 활성화함으로써 대학생들의 심리적 적응이나 진로지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할 때, 대학생이 원가족에서 경험한 정서적 역동에 대한 이해와 재구성, 그리고 심리내적 측면과 대인관계 차원의 자기분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심리적 적응을 돕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여학생의 심리적 안녕 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은 원가족 경험보다 자기분화 수준을 높이는 데 더 많은 초점을 둔다면 더 효과적인 것임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대학생인 성인 자녀와 지속적으로 유대관계를 가지면서도 분리와 독립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Carter & McGoldrick, 1996). 본 연구결과도 대학생 자녀를 둔 가족이나 그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의 정서적 역동성을 건강하게 하는데 초점을 둔 프로그램은 결국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자기분화가 Bowen(Kerr & Bowen, 1988)의 주장대로 성별이나 문화에 보편타당한 개념인지, 아니면 성별 혹은 문화에 따라 차별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개념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논의(이선희, 1998; 신혜섭, 2002; Chung & Gale, 2006; Gushue & Constantine, 2003; Skowron, 2004; Tuason & Friedlander, 2000)가 있어왔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기분화가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기분화 개념이 성별에 따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기분화의 문화적 보편성에 대한 여러 반박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자기분화는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을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

만을 대상으로 한 이러한 결과를 곧 자기분화 개념이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교문화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자기분화 개념의 문화적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동일한 문화안에도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는 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가치성향에 따라 정신건강에 있어서 자기분화의 유용성에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는 연구도 자기분화 개념의 문화적 보편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중요한 연구과제로 사료된다. 이는 자기분화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인 자율성과 관계성(Kagitcibasi, 2005)의 측면을 동시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또 우리나라에서 Bowen 가족치료 모델이 많은 임상가 및 연구자들의 중요한 초점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인과모형은 횡단연구를 통한 자료수집방법에 의해 검증되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의 연구가 종단적 자료수집을 통해 이론적 모형을 검증한다면 보다 타당성있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미혼의 성인자녀가 있는 가족에는 대학생 자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타의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자녀들도 포함되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미혼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다 폭넓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심리적 안녕

참 고 문 헌

- 강명자 (2007).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부부 갈등의 관계.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권미애 (2004). 중장년 부모-미혼 성인자녀간의 정서체계 역동성이 자녀의 심리적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 논문.
- 권정란 (2005).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따른 부부적응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04). 기혼남녀의 원가족 경험과 자아분화가 가족 체계기능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박사학위 논문.
- 김나리 (2001).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민경 (2003).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1).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3). 여성정신건강. *Web Health Research*, 4, 1-11.
- 김순기 (2001). 이혼자녀가 지각하는 원가족의 정서적 건강성과 자아정체감이 결혼후 심리적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정은 (2006). 가족건강성이 대학생의 자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오남 (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 박사학위논문.
- 김재수 (2008).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환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 노형진 (2003). SPSS/Amos에 의한 사회조사분석. 서울: 형설출판사.
- 동아일보 (200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대학생 실태조사.
- 박병두, 이규향, 이재광, 유영식, 기백성 (1993). 정신과 응급실 반복 방문자. *신경정신의학*, 32(2), 212-221.
- 박유화 (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배미애 (2008). 청소년의 자아분화가 자기통제력, 대인관계 문제 및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석사학위 논문.
- 배병렬 (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분당서울대병원 (2007). 대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
- 신혜섭 (2002). 보웬가족치료이론과 한국적응에 대한 고찰. *생활과학연구*, 7, 193-201.
- 양진선 (2004). 부부친밀감과 자아존중감 및 원가족 건강성간의 관계. 경희대 석사논문.
- 오청미 (2005). 기혼남녀의 자아분화가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 석사논문.
- 유영달 (2003). 남녀간 정신장애 유병률 차이에 관한 소고. *여성연구 논집(신라대학구 여성문제연구소 편)*, 14, 127-160.
- 유은희 (1991).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만족도. 이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세은 (2000).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의 건강성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서울시 남녀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혜 (1998). 한국에서의 Bowen 이론 적용에 대한 고찰: 자아분화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6(2), 151-176.
- 이신숙 (200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 수준과 생활만족도간의 관계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5(1),
- 이원옥 (2003). 가족체계유형과 미혼성인의 자아분화, 우울과의 관계.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 이천숙 (1996). 가족체계유형 및 자아분화와 청소년 후기 자녀의 심리적 안녕. 명지대 석사논문.

- 이현주 (1998). 부부의 자아분화 정도와 갈등대처행동에 관한 연구. 성대 석사학위 논문.
- 이현주 (2000). 진로미결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분석. 교육심리연구, 14(1), 113-140.
- 임지혜 (2004). 중년기 여성의 자아분화와 우울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연진 (2002). 삼세대 가족관계 경험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 전춘애 (1994). 부부의 자아분화 수준과 출생가족에 대한 정서적 건강지각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상희, 정혜정 (2008).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가 대학생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95-108.
- 황원준, 정용균, 김종주(1995). 정신과에 처음 내원한 환자의 6개월 후 추적조사. 신경정신의학, 34, 59-69.
- Ault-Riche, M. (Ed.). (1986). *Women and family therapy*. Rockville, MD: Aspen.
- Bartle-Haring, S., & Sabatelli, R. (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s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ohlander, R. W. (1999). Differentiation of self, need fulfill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arried men. *Psychological Reports*, 84, 1274-1280.
- Boszormenyi-Nagy, I., & Spark, G. M. (1973). *Invisible loyalties*. Hagerstown, MD: Harper & Row.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Aronson.
- Buboltz, W. C., Johnson, P., & Woller, K. M. P. (2003). Psychological reactance in college students: Family-of-origin predictor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 311-317.
- Carter, B., & McGoldrick, M. (1996). 가족생활주기와 가족치료. (정문자 옮김, 원서명: The changing family life cycle: A framework for family therapy).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저출판연도: 1989).
- Chung, H., & Gale, J. (2006). Comparing self-differenti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tween Korean and European American studen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8(3), 367-381.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correlation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Erlbaum.
- Dmitrieva, Chen, Greenberger, & Gil-Rivas (2004). 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psychosocial outcomes: Converging findings from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4), 425-447.
- Elieson, M. V., & Rubin, L. J. (2001).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jor depressive disorders: a test of Bowen theory among clinical, traditional, and internet groups. *Family Therapy*, 28(3), 125-142.
- Framo, J. L. (1976). Family of origin as a therapeutic resource for adults in marital and family therapy: You can and should go home again. *Family Process*, 15, 193-210.
- Gushue, G. V., & Constantine, M. G. (2003). Examining individualism, collectivism, and self-differentiation in African American college women.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5(1), 1-15.
- Heaven, P., Searight, R., Chastain, J., & Skitka, L. J.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health and personality functioning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4(4), 358-366.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 Cochran, S. W. (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Jenkins, S. M., Buboltz, W. C., Schwartz, J. P., & Johnson, P.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7(2), 251-261.
- Johnson, P., Thorngren, W. C., & Smith, A. J. (2001). Parental divorce and family functioning: Effects on differential levels of young adults. *The Family Journal*, 9, 265-272.
- Kagitcibasi, C. (2005). Autonomy and relatedness in cultural context: Implications for self and family.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6(4), 403-422.
- Kerr, M. E., & Bowen, M. (1988). *Family evaluation*. New York: Norton.
- Klever, P. (2003). Intergenerational fusion and nuclear family functioning.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4), 431-451.
- Knudson-Martin, C. (1994). The female voice: Applications to Bowen's Family Systems Theor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0, 35-46.
- Lee, R. E., Gordon, N. G., & O'Dell, J. S. (1989). The validity and use of the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5, 19-27.
- Lips, H. (2008). *Sex and Gender: An introduction (6th ed.)*. New York: McGraw Hill.

- Mazer, G. E., Mangrum, O. L., Hovestadt, A. J., & Brashear, R. L. (1990). Further validation of the family-of-origin scale: A factor analysi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6, 423-426.
- Miller, R. B., Anderson, S., & Keala, D. K. (2004). Is Bowen theory valid? A review of basic research.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0, 281-300.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Boston, MA: Harvard Univ. Press.
- Niedermeier, C. L., Searight, H. R., Handal, P. J., Manley, C. M., & Brown, N. (1995).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mong adolescent psychiatric inpatients: Validity of the Family-of-Origin Scale.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25(4), 253-265.
- Peleg-Popko, O. (2002). The relation between differentiation and social anxiety: What can be learned from students and their parent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3, 167-183.
- Piatt, A. L., & Ketterson, T. U. (1993). The relationship of psychological adjustment to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mong African-American adolescents. *Adolescence*, 28, 673-68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ichards, E. R. (1989). Self-reports of differentiation of self and marital compatibility as related to family functioning in the third and fourth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An International Journal*, 3, 163-175.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59-169.
- Satir, V. (1972). *Peoplemaking*. Palo Alto: Science and Behavior Books.
- Skowron, E. A.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personal adjustment, problem solving, and ethnic group belonging among persons of color.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447-452.
- Skowron, E. A., & Friedlander, M. I. (1998). The Differentiation of Self Inventory: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5, 235-246.
- Skowron, E. A., Holmes, S. E., & Sabatelli, R. M. (2003). Deconstructing differentiation: Self regulation, interdependent relating, and well-being in adulthood.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5, 111-129.
- Skowron, E. A., & Schmitt, T. A. (2003). Assessing interpersonal fusi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new DSI Fusion with Others sub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9(2), 209-222.
- Skowron, E. A., Wester, S. R., & Azen, R. (2004). Differentiation of self mediates college stress and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2, 69-78.
- Tuason, M. T., & Friedlander, M. L. (2000). Do parents' differentiation levels predict those of their adult children? and other tests of Bowen theory in a Philippine sampl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27-35.
- Yelsma, P., Hovestadt, A., Anderson, W. T., & Nilsson, J. E. (2000). Family-of-origin expressiveness: Measurement, meaning, and relationship to alexithymia.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3), 353-363.
- Yun, Y. H., Kim, S. H., Park, S. M., & Kim, Y. M. (2007). Age, sex, and comorbidities were considered in comparing reference data for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the general and cancer populations. *Journal of Clinical Epidemiology*, 60, 1164-1175.
- Whitaker, C. A., & Keith, D. V. (1981). Symbolic-experiential family therapy. In A. S. Gurman & D. P. Knistern (Eds.), *Handbook of family therapy*. New York: Brunner/Mazel.
- en.wikipedia.org/wiki/Mental_disorder.

(2008. 8. 27 접수; 2008. 12. 3 채택)

[부록] 변인들간의 상관계수 행렬

여학생	남학생	원가족 기능	자기분화				심리적 안녕		평균	표준 편차	
			정서적 반응	자기 입장	정서적 단절	타인과 융합	자존감	우울			
		원가족 기능	.14	.29	.43	.04	.44	-.42	3.68	.52	
		정서적 반응	.10	.30	.49	.58	.33	-.42	2.92	.62	
자기 분화		자기입장	.20	.43	.26	.33	.48	-.36	3.80	.57	
		정서적 단절	.37	.37	.17	.34	.50	-.61	3.83	.61	
		타인과 융합	.01	.62	.44	.26	.32	-.26	2.91	.52	
심리적 안녕		자존감	.33	.22	.42	.34	.17		-.57	4.25	.64
		우울	-.04	-.40	-.27	-.44	-.21	-.50		1.93	.43
		평균	3.66	2.72	3.55	3.87	2.72	4.11	2.08		
		표준편차	.58	.61	.56	.57	.51	.65	.41		

(대각선 위는 남학생, 아래는 여학생의 결과임; 남학생=268명, 여학생 587명)